

필리핀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필리핀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2020. 10.

국방기술품질원

이 면은 공백임

이 면은 공백임

Contents

제1장 요약	3
제2장 시장/환경 분석	7
제1절 일반현황	7
1. 개요	7
2. 정치·경제환경	9
3. 안보환경	11
4. 한국과의 교류	18
5. 전력구조 및 군사조직	19
제2절 획득정책 및 제도	20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	20
2. 예산편성절차	22
3. 조달절차	24
제3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13
1. 군사육성정책 및 획득중점	25
2. 무기체계 획득 동향	26
3. 예산 지출 전망	29
4. 방산역량 및 정부지원정책	32
5. 국방 절충교역 제도	37
6. 수출 장애요인	39
7. 수출 유망품목	40



제3장 시장진출 전략	50
제1절 시장 환경 분석(SWOT 분석)	50
1. 분석 개요	50
2. 강점(Strength)	51
3. 약점(Weaknesses)	51
4. 기회(Opportunities)	52
5. 위협(Threats)	52
제2절 시장진출 전략	53
1. SO 전략(강점-기회 전략)	53
2. ST 전략(강점-위협 전략)	53
3. WO 전략(약점-기회 전략)	54
4. WT 전략(약점-위협 전략)	54
5. 필리핀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55
제4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57
제1절 정책제안	57
1. 정부 협력차원의 정책	57
2. 한국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방안	58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61

Contents

부 록	64
1. 군종별 노후화 장비	64
2. 향후 획득 계획	65
3. 제2차 군 현대화 계획(Horizon Phase II) 조달목록	73
4. 현지 주요 방산기업	75
참고문헌	81



표목차

[표 2-1] 필리핀 일반 현황 7

[표 2-2] 필리핀 조직별 BAC 인사구성 22

[표 2-3] 필리핀 군 조달 절차 24

[표 2-4] 2017~2024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30

[표 2-5] 군종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30

[표 2-6]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31

[표 2-7] 필리핀 2015~2019년 체계별 수입 현황 40

[표 2-8] 필리핀 2020~2029년 체계별 획득 계획 41

[표 2-9] 필리핀 2020~2029년 '20~'29년 지휘통제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43

[표 2-10] 필리핀 '20~'29년 통신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43

[표 2-11] 필리핀 '20~'29년 EO/IR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44

[표 2-12] 필리핀 '20~'29년 시뮬레이션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기업
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45

[표 2-13] 필리핀 무인체계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
성이 높은 항목 46

DTaQ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1] 필리핀의 위치	8
[그림 2-2] 필리핀 국방 계획 수립 단계	11
[그림 2-3] 필리핀 민다나오 섬 위치	16
[그림 2-4] 남중국해 위치	17
[그림 2-5] 필리핀 국방부 조직도 및 지휘 계통	19
[그림 2-6] 필리핀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	23
[그림 2-7] 군종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31
[그림 2-8] 지출 분야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32
[그림 2-9]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40
[그림 3-1] 필리핀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50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1 장

개 요

1

제

장

요 약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에 관한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으로, 필리핀 방산시장의 특성 및 정책 방향, 국방지출, 획득 예정 사업 등을 바탕으로 태국 방산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의 수행 임무에 따라 국내 국방분야 중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과 진출 전략 제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두었다.

필리핀은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를 표방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ASEAN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통합과 재건을 강조한 ‘오픈 카파야판(Oplan Kapayapaan, 평화작전) 기조 하에 군 현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두테르테 정권 하에 2단계 사업(2018~2022년)이 전투기·전투함 추가 획득과 잠수함 신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 방산 시장의 특성을 SWOT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주요 전략을 수립하였다.

2020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획득예산 및 사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필리핀은 함정, EO/IR/시뮬레이션 및 해당 분야 MRO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현지 로드쇼 지속적 개최, FMS와 유사한 GtoG 판매정책 수립, 중소기업연합조직 설립 등을 시장진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 협력 차원과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필리핀 방위산업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향을 고민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내실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2장

시장/환경 분석

제 2 장

시장 / 환경 분석

제 1 절 일반현황

제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일반현황1)2)3)4)5)

1. 개요



[표 2-1] 필리핀 일반 현황

구분	내용
국명/화폐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페소(Peso)
면적	300,400km ² (한반도의 1.3배)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수도	메트로마닐라 (인구 : 약 1,288만 명)
인구	1억 700만 명 (2018, IMF)
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종교	가톨릭교(83%), 개신교(9%), 이슬람교(5%), 불교 및 기타(3%)
인종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 다수
정부형태	대통령제 (6년 단임)
국가원수	원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의회제도	양원제 : 상원(24석, 임기 6년), 하원(299석, 임기 3년)
국내총생산	3,309억 달러 / GDP 성장률 : 6.2%(2018년 기준 IMF)
해외교역	교역 : 1,767억 USD (수출 : 676억 USD, 수입 : 1,091억 USD)
주요자원	코프라, 설탕, 목재, 아바카, 철광석

- 1) 필리핀 개황 (외교부, 2019.11)
- 2) KOTRA 해외시장 뉴스 국가.지역 정보-필리핀
- 3)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 5) 2020 국별 진출전략-필리핀, KOTRA, 2020



[그림 2-1] 필리핀의 위치

- ▶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는 필리핀해, 셀레베스해, 남중국해의 경계를 이루며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있다. 30만 400km²에 달하는 국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종족·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구분에 의한 것으로, 지도상으로는 (1) 북부의 루손섬과 (2) 중부에 군집한 수천 개의 섬인 비사얀제도, 그리고 (3)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서 인근 바다가 태풍의 발생지이며 환태평양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 ▶ 필리핀은 1946년 스페인, 미국, 일본에 의한 긴 식민지배를 벗어나 필리핀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뒤이은 마르코스 대통령(1965~1986)이 장기 집권 및 계엄령 선포로 1인 지배 체제가 수립되자, 1986년 제1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 발발 및 승리로 인하여 직선제가 수립되었다.
- ▶ 이후 아키노(Corazon Aquino) 대통령,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부정 부채, 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자 2001년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이

발발하였으며, 이 또한 성공하였다.

- 이후 아로요(Gloria Macapagai Arroyo) 대통령, 아키노(Benigno Aquino) 대통령을 거쳐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Rodrigo Roa Duterte) 대통령이 현재까지 재임중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Davao) 시에서 20년 이상 검사와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필리핀 역사상 첫 민다나오 출신이다.

2. 정치·경제환경

가. 경제환경 개관

- 2000년대 들어 필리핀의 국가경제는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잠시 둔화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부터 경제 성장세는 다시 강하게 반등하여, 최근 5년간 6%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 필리핀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의 주요 동력으로는 수출 확대, 민간소비 활성화, 인구 증가,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강력한 부패 척결 노력, 세수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부분적으로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의 중기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놀랄 정도의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듯하며, 더불어 수출 호조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첨단 정밀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필리핀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수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 필리핀 경제가 중기적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정치 불안정과 반란 세력에 의한 테러 도발과 같은 위험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함에 따라 필리핀 경제는 세계 IT 수요의 건전성분만 아니라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열악한 교통체계와 사회 인프라의 부족, 여전히 취약한 제조업 기반, 미흡한 수준의 생산성,

전력 공급 상의 문제, 금융 시장의 제약 등 허약한 투자 환경을 볼 때 장기적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불필요한 규제 및 관료주의(red tape), 만연한 부정부패, 복잡한 사업 절차, 경직된 노동시장 등 투자 환경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담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나. 정치환경 개관

- 필리핀은 16세기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그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1521년 필리핀을 발견하였으며,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Philippines로 국명을 정하였다. 그로부터 50년 후인 1571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다.
- 1898년 6월 12일, 아귀날도(Aguinaldo) 장군이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로 2,000만 달러에 미국에 이양되면서 43년간 미국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다.
- 1935년 11월 15일 퀘존(Manuel L. Quezon) 대통령에 의해 자치정부가 수립됐으나,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의 점령기를 거친 다음, 1945년 해방되었다.
- 라몬 막사이사이(Ramon Magsaysy) 초대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억제와 민주주의 회복에 힘썼다. 이후 마르코스(Marcos),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 라모스(Fidel V. Ramos), 에스트라다(José Marcelo Ejército, Joseph Estrada),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Simeon C. Aquino III) 대통령에 이어 현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권좌에 있었던 베니그노 아키노는 집권기 동안 권력 기반 강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제개혁, 사회 인프라 개발, 부정부패 퇴치, 민다나오 평화 구축에 진력할 수 있었다.
- 2016년 5월 대선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1945년생)는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필리핀당 소속 후보로 출마,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범죄 소탕과 부패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39% 이상의 득표율로 권좌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척결, 빈곤 타파,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보수 정치 구도를 끝내고 지방분권형 정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방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지방별 맞춤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필리핀 대중의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리울 만큼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견고 있어 마약사범 척결과 정적(政敵) 제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 현재 필리핀 대중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 ❖ 두테르테 대통령은 두테르테 정부는 대외적으로 자주외교(independent foreign policy)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ASEAN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안보환경

가. 정책 기조



[그림 2-2] 필리핀 국방 계획 수립 단계

- ❖ 필리핀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재개, 이슬람 반군 및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출현으로 인해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한 전력 강화를 최우선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판단은 반정부 저항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대반란 전략 오픈란 반타라야(Oplan

Bantay-Laya)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군에 의한 초법적 살상과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초에 이르러 필리핀의 군사전략은 국가 통합과 재건을 강조한 ‘오픈 카파야판(Oplan Kapayapaan, 평화작전)’ 기조로 대체되었다.

- 최근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은 더 높은 수준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에 대응하여 방위 산업 기반 확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번 좌절되었다. 국방 산업 발전의 더 넓은 혜택 또한 정부에 의해 주요 정책목표로 부각되었다. 주요 정책은 자주적 방위 태세 (Self-Reliant Defence Posture, SRDP)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SRDP는 특정 방어 생산 프로그램을 국가 지원 연구와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하도록 권장된 국내 기업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부에서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무전기, 경차, 탄약, 박격포와 같은 다양한 재래식 군사장비를 현지에서 개발 제작하였다. 2018년 정부는 SRDP 정책을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주로 총기 및 탄약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을 우선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조선업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된 능력들의 목록을 확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 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군 임무 수행 보장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세부 목표로는 ①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방어 태세 구축, ②영토 및 주권 보호를 위한 전력 구비가 있다.
- 이에 제1차 군 현대화 계획(1996~2010)이 구상되었으나, 1997 경제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아키노 정권부터 5년 단위 3단계 군 현대화사업(2013~2027)을 진행 중이다.

 - 1단계(2013~2017) : 최소한의 신뢰방어 기반 구축 및 내부 치안 소요 충족
 - 2단계(2018~2022) : 최소한의 신뢰방어 기반 구축 및 내부 치안작전 충족⁶⁾
 - 3단계(2023~2027) :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 전력 확보

6)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나. 대외 관계

대미 관계

-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독립 이후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대미 관계 유지와 발전을 최우선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필리핀 안보의 기본 축이며, 필리핀은 미국의 역내 군사·정치·경제적 존재가 지역 안보에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냉전 초기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미국은 1951년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고, 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을 설치하고 주둔하며 필리핀에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 마르코스 정권 붕괴로 이어진 1986년 시민혁명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반미주의가 급부상, 미군의 필리핀 주둔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1992년 11월 결국 주필리핀 미군이 철수하였으나, 이후에도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 유지·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1999년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로 미국의 원격 안보 지원 및 양국 간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에 대한 아로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2년 미군 철수 후 소원해졌던 양국 안보협력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였다. 2010년 아키노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미국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재균형을 모색하면서 양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급격히 회복되었다.
-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최소 신뢰 방위능력(minimum credible defense posture)’을 구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필리핀·미국 외교·국방 장관 회의(2+2 회의), 필리핀·미국 전략대화 설치 등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2014년 4월 필리핀은 미국과의 국방협력 증진 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자국 내 합의 구역에 대한 미군의 ▲ 순환적 접근 및 사용 ▲ 군사 장비, 물자 및 자재 등 사전 배치 가능 ▲ 시설 구축, 개량 및 보수에 동의하였다. 2016년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재확인하고자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래 필리핀·미국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최대 규모인 8,000명으로 확대하였다.

대일 관계

-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미국·일본 안보동맹의 틀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2011년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2015년 8월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및 9월 일본 방위안보 법안 의회 통과 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 두테르테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일본 방문(2016.10., 2017.10., 2019.5.)과 아베 총리의 필리핀 방문(2017.1월 및 11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대일본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분야 안전보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일본 정부는 필리핀 측에 해양 순시선을 공여하고 해상경비대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보·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2018년 현재, 일본은 필리핀의 제1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이며 제2의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일본은 필리핀의 대외원조(ODA) 수원 총액의 약 46%⁷⁾를 제공하는 등 2차 대전 시 필리핀을 점령했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006년 이래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반군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을 ODA로 지원하는 한편, 민다나오 평화협상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대중 관계

- 필리핀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선린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아키노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2011년 3월 Reed Bank 분쟁, 2012년 4월 Scarborough Shoal(황암도) 분쟁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위기감과 반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하면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도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통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및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2년 이후 중국이 금지했던 필리핀 어민들의 남중국해 내 조업도 재개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4월 보아오포럼

7)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자료

참석차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내 자원 공동탐사와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 2018년 5월 중국이 점유한 남사군도 내 필리핀령 인공섬에 지대공·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었다는 언론 보도 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정책에 대해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두테르테는 중국의 미사일은 필리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정책을 강변하였다.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필리핀과 중국 간 관계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2018년 현재,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007·2017년 아세안 의장국, 2009~2012년 미국·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 3년간 중국·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카버러 리프(Scarborough Reef)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과 남사군도, 즉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일부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 중이다.

▣ 대아세안(ASEAN) 관계

- 필리핀은 아세안의 창립회원국으로서 아세안을 토대로 삼아 지역안보 증진 및 통상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동남아비핵화지대 조약(199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 서명) 등을 통한 아세안의 확대·발전 추구 및 역내 유일의 정부 간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필리핀은 2007·2017년 아세안 의장국, 2009~2012년 미국·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 3년간 중국·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카버러 리프(Scarborough Reef)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과 남사군도, 즉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일부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 중이다.

- ▣ 출범 직후부터 부정부패 및 범죄 척결의 최우선 과제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 남부지역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추종 반군과의 교전에서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동원해 토벌하는 등 군·경 공권력을 활용하여

이슬람 반란 세력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과 2014년 평화협상이 체결된 이후 MILF(MoroIslamicLiberation Front; 모로이슬람해방전선), 모로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 MNLF), 방사모로 이슬람자유운동(Bangsamoro Islamic Freedom Movement ; BIFM) 등 모로 집단 형태의 이슬람 반란의 강도와 횡수는 줄어들었지만, 필리핀 정부에게는 여전히 핵심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다.

다. 주요 안보 이슈

◆ 민다나오 문제



[그림 2-3] 필리핀 민다나오 섬 위치

- 민다나오 섬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출신지인 필리핀 남부 섬으로, 15세기부터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나, 미국 식민 당국 및 독립 후 필리핀 정부가 가톨릭교도를 적극 이주시킨 결과 현재 이슬람교도는 민다나오 인구의 25% 수준(약 500만 명)이다. 본래 이 섬은 필리핀 이슬람교도들이 살던 곳이었었는데, 미국 통치 하에서 북쪽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믿는 필리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 선주민은 오지 쪽으로 밀려났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슬람교도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 필리핀의 이슬람 테러 조직인 아부 사야프와 모로해방전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두 조직 모두 필리핀 군과 무력 충돌이 잦다. 이렇게 치안이 불안정한 이유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이 섬을 특별여행경보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잠보앙가, 솔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는 여행 금지지역이며 2020년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이다.

▣ 남중국해 문제



[그림 2-4] 남중국해 위치

•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44개 도서와 400여 개 산호초로 구성된 남사군도 (Spratly Islands, 해역 22만km²)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 6개국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있다. 이는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인접국들은 경쟁적으로 남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자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이 심하다. 중국은 해감선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며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관할권의 기정사실화를 시도하였다. 필리핀은 중국과 협의를 통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유엔 중재재판에 제소하여 필리핀이 승소하였으나, 중국은 재판 결과를 불수용하였다. 현재는 2018년 11월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 주석으로서는 13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과 31개 항과 29개 합의문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석유·가스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해양 석유·가스 탐사와 광물, 에너지 및 기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해양협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국과의 교류⁸⁾

- ❖ 필리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영국·프랑스·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와 수교하였으며, 6·25전쟁에 7,420여 명을 파병해 준 오랜 우방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가장 친한적인 국가 중 하나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우리와도 안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 ❖ 필리핀은 인구 1억 명 이상의 잠재적 대형 시장으로서 필리핀의 자원·인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018년에는 필리핀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159만 명을 기록하여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 방문객 중 1위(약 23%)를 차지하는 등 인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필리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 ❖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부터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4·2017·2018년에는 대필리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한국의 제8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28위 수입대상국이다.
- ❖ 196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전체 누계 기준 한국 기업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총 약 56억 5,560만 달러(신고 기준,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이며, 우리 기업의 필리핀 투자는 에너지, 전기, 전자, 섬유, 조선뿐만 아니라 SOC 건설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 ❖ 2019년 상반기 투자액 기준, 한국은 대 필리핀 7위 투자국(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태국,

8) 필리핀 개황 (외교부, 2019.11)

미국, 대만, 한국, 중국, 호주, 인도 순, 출처 : 필리핀 통계청, 2019년 2분기 기준)이다. 최근 5년간 매년 50여 개의 신규 법인이 투자하고 있으며 신고 금액 또한 2016년을 제외하고 2억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2019년 1분기 기준 투자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 건설·공사, 금융 등으로, 2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국의 주요 투자 기업들은 한국전력(발전), 한진중공업(조선소), 삼성전기(칩저항기·콘덴서), SFA반도체(반도체), 신한·기업·외환·우리은행(금융) 등이다.

5. 전력구조 및 군사조직⁹⁾¹⁰⁾

- 필리핀의 국방 조직은 국방참모총장 예하에 참모본부, 육·해·공군사령부 및 지역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필리핀의 군령과 일부 군정은 국방참모총장이 관할하고, 각군사령관이 국방참모총장의 통제를 받아 행정 및 군수지원의 제한된 부문에서 군정권을 행사하는 통합군제 형태이다.



[그림 2-5] 필리핀 국방부 조직도 및 지휘 계통

9)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윤자영·김이곤, 2014.6.

10) 국방기술품질원, "2019 세계방산시장연감 - 필리핀"

제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¹¹⁾¹²⁾¹³⁾¹⁴⁾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

가. 법령체계

- 필리핀에는 국방 장비 획득을 위한 별도 법령 없령이 없으며,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공공조달 관련 법령은 정부조달개혁법(Republic Act No. 9184) 제3장 및 시행령(IRR, Implement Reforming Rules and Regulations)이다. 정부조달개혁법은 국방조달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속·통제하는 행정명령 No 169(2007)으로 보완되는 구조이다. 이에는 공공물자 획득 5원칙(투명성, 공정성, 통일성, 준법성, 공공성)이 적용된다.

※ 정부조달개혁법(Republic Act No. 9184) 제3장

Government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se principles:

- a) Transparency in the procurement process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urement contracts through wide dissemination of bid opportunities and participation of pertinent nongovernment organizations.
- b) Competitiveness by extending equal opportunity to enable private contracting parties who are eligible and qualified to participate in public bidding.
- c) Streamlined procurement process that will uniformly apply to all government procurement. The procurement process shall be simple and made adaptable to advances in modern technology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 d) System of accountability where both the public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procurement process as well a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private parties that deal with government are, when warranted by circumstances, investigated and held liable for their actions relative thereto.
- e) Public monitoring of the procurement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awarded contracts with the end in view of guaranteeing that these contracts are awar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this IRR-A, and that all these contracts are performed strictly according to specifications.

11) Republic Act No. 9184, 제3장

12)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13) KOTRA 해외시장 뉴스 국가·지역정보-필리핀

14)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윤자영·김이곤, 2014.6.

- 또한, 2012년 12월 제정된 개정 군 현대화법 개정법안(Republic Act No.10349 AFP Modernization Act)이 현행 국방조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각 군이 무기소요 제기 시 이를 참고하고 있다. 그 핵심 요소는 당시 아키노 정부하에서의 군 현대화를 위해 5년간 PHP 750억 달러(약 USD 15억 달러)의 조달자금을 배정하는 데 있었으나 제한된 국방예산,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대외 의존도, 장기간의 부패·비리 및 투명성 결여, 조달 조직의 비효율성은 사업의 빈번한 지연을 초래하였다. 외국 입찰 기업들은 필리핀 국방부 산하 다수 부서의 개입, 관료주의적 업무 구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 남중국해의 점증하는 긴장도에 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장기적인 군 현대화 사업과 군사력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조달 체계 개선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국방 획득(procurement)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원칙 또한 투명성(Transparency)이다.

나. 획득 담당 조직

- 국방부 획득국이 획득 업무를 담당 및 승인하며, 이 과정에서 GPPB의 감독 및 PCC의 승인이 필요하다.
- GPPB는 정부 무기획득정책 위원회(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로, 필리핀 정부의 모든 조달사업을 감독한다. 정부조달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보장을 목적으로 정부 조달개혁법(Republic Act No. 9184)의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PCC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로,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 촉진 및 불공정거래 방지·처벌을 목적으로 경쟁법(Republic Act No. 10667)의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2020년 2월부터 국가 획득 시 PCC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의사결정 관련 조직

- 의사결정 관련 조직으로는 무기계약위원회(BAC, Bids and Awards Committee)가 있다. 국방부 산하 획득국, 국방참모본부 및 육·해·공 군사령부 각각에 BAC가 설치되어 각 조직 소요에 대한 획득을 담당하고 있다.

[표 2-2] 필리핀 조직별 BAC 인사구성

국방부	국방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
위원장 : 차관보 국장급 위원(3명) 국방참모차장 행정지원요원	위원장 : MPMO*(소장급) 해당 군 부사령관 일반 참모부 차장(3명) 행정지원요원	위원장 : 부사령관(소장급) 각 군 MPMO*(대령급) 일반참모부 차장(중·대령급) 행정지원요원

* MPMO : Modernization Program Management Office, 군 현대화사업 담당실

- 5000만 페소(약 112만 달러) 이하의 사업은 각 군의 BAC가, 5000만 페소 이상의 대형 사업은 국방부의 BAC가 담당한다. BAC는 입찰에 있어 소요군 이상의 권한과 역할을 담당한다. 각 군의 군사령관이 BAC의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2. 예산편성절차¹⁵⁾¹⁶⁾¹⁷⁾

- 필리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역년(calendar year)과 일치한다. 예산 편성 및 승인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상하 양원의 과반수가 각 의회의 예산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도 이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 예산 승인 절차는 종종 하원과 상원 사이에서, 또는 양원 위원회 사이의 알력에 의해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대통령이 거절권(veto)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또한 못지않게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15) OECD Journal on Budgeting, "Budgeting in Philippines by Jon R Bloendal"(2010)

16) dbm.gov.ph/wp-content/uploads/2012/03/PGB-B2.pdf

17) Global Data, The Philippine Defense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5

예산안 편성(3~8월)

국가기관들은 주요 예산안 작성하며 작성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득한 후 의회에 제출

- 월별 준비 내용
 - 3월~4월 : 지출 및 수입 예측, 중기지출계획 업데이트, 예산전략(Paper on Budget Strategy, PBS) 수립
 - 4월 : 예산안(Budget Call) 발행
 - 5월 : 지정된 예산한도를 바탕으로 각 지출부처의 2차 예산안 제출
 - 5월~7월 :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와 집행 부처 간 의견 조정
 - 7월 말 : 예산관리부가 의회 제출용 예산안 중 결정, 대통령 승인
 - 7월 말~8월 초 : 대통령 승인 및 의회 제출



예산안 승인(8~12월)

완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상·하원에 의해 총 2차에 걸친 검토가 진행되며,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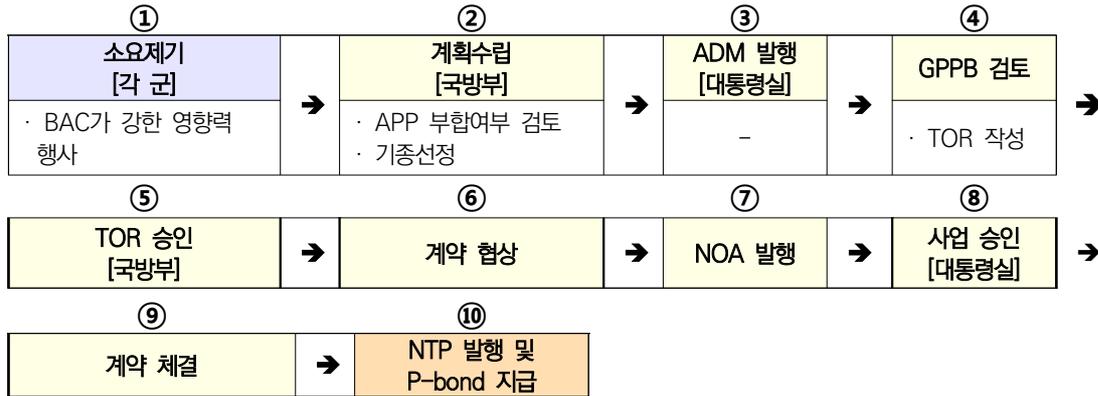
- 월별 준비 내용
 - 8월 : 예산안 하원 제출(1차 검증)
 - 8월~9월 : 예산안 하원 검토
 - 10월 초 : 예산안 하원 수정·승인 및 상원 제출
 - 12월 초 : 예산안 상원 수정·승인, 양원합동위원회의 상하원안 절충
 - 12월 : 예산안 최종 승인
 - 12월 말 : 대통령 승인 하 법제화 혹은 비토권 행사

[그림 2-6] 필리핀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

3. 조달절차

- 방산물자 조달은 각 군 소요 제기 후 국회 비준, 대통령 재가 후 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방산물자 조달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승인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표 2-3] 필리핀 군 조달 절차



* 근거 : Republic Act No. 9184

▶ 약어 정리

- * APP : Annual Procurement Plan(연간조달계획)
- * ADM : Acquisition Decision Memorandum(획득 결정 통지서)
- * GPPB :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정부 무기획득정책 위원회)
- * TOR : Terms of Reference(사업 요구도)
- * NOA : Notice of Award(수주 통지)
- * NTP : Notice of Proceed(사업이행 통지)
- * P-Bond : Performance Bond(이행보증금)
- * PCC :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필리핀 경쟁위원회)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1. 군사육성 정책 및 획득 중점

- 2017년 필리핀 국방부는 14개 사업에 걸친 1차 군 현대화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제1차 계획은 2012년 아키노 정부에서 추진한 필리핀 국군 현대화 계획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효과적인 최소 신뢰 방어 태세" 구축을 위한 소요를 완성함으로써 필리핀 군사력의 지향 방향을 국내적 안보 확보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영토 방어 태세 구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발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 제1차 계획은 중국과 분쟁 중인 Spratly Islands 지역 분쟁 시 대응 가능한 방위태세 구축에 목표를 두고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연계하여 구축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주요 체계 획득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¹⁸⁾하였다.

 - 해군 : 수송양륙함 2척(LPD, 2016, 인도네시아), 초계함 2척(2017, 한국)
 - 공군 : FA-50 12기(2015, 한국), CN-295수송기 3기(2016, 스페인), C-130수송기 2기(2016, 미국), NC-212i 소형연락기 (2017, 인도네시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군 현대화 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내부 안보와 반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군의 외부 영토 방어에 대한 방어 중점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필리핀군은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와 같은 자산의 조달을 추구하고 있다.
- 2018년 6월 2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15개년 『필리핀 국군현대화계획』의 3단계 계획 착수를 승인하면서 2018~2022 중 3천억 페소 (56억 \$) 규모의 군 현대화 구매 목록을 승인하였다.¹⁹⁾ 이 중 해군에는 PHP 770억, 공군에는 PHP 1400억, 지상군에 나머지가 할당된다.
- 두테르테 정부는 2013년부터 군사력 증강 중점을 아키노 정부와 달리 국가간 분쟁 대비

18) "2017년 동아시아 전략개관", 일본 방위연구소, 2017.

19) Mike Yeo, "Here's the Philippine military's wish list for its newly approved modernization phase," Defense News, June 21, 2018, <https://www.defensenews.com/global/asia-pacific/2018/06/21/heres-the-philippine-militarys-wish-list-for-its-newly-approved-modernization-phase/>

태세보다는 대테러 작전 및 국내 치안질서의 회복과 유지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탄조끼와 같은 부대방호용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전투기의 구매보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의 확보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전력 플랫폼 확충은 종전과 동일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두테르테 정부는 미국 편중의 기조를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 중국 + 러시아,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와 무기공급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제3차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필리핀군이 역내의 어떠한 상대국이라도 대등한 방위능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완전히 확보하고, 지역 인도주의 및 재난 구조와 평화유지 임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내외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필리핀 군부는 향후 10여 년간 광범위한 군수물자 획득 계획을 수립하였다. 획득 대상 목록에는 잠수함, 상륙 플랫폼용 부두선, 도입 전투기 조종사 훈련기, 다목적 전투기가 포함되지만, 군 현대화 사업의 범위는 해당 시점의 가용 자원 조달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 허약한 국내 산업기반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군사 장비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구경 화기, 탄약, 소형 해군기 생산 경험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플랫폼 조립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무기체계 획득 동향

■ 육군

- 155mm 견인포 : 2017년 필리핀은 이스라엘 업체인 Elbit Systems가 생산한 M-71 견인포 12문을 인도받았다. 계약에 따라 지상군과 해병대는 각각 6문의 견인포를 받게 된다. 공개된 입찰문서에 따르면 동 사업에는 240발의 155mm 고폭탄과 통합 군수

지원 패키지가 포함된다.

- M113 개량 : 지상군은 2014년 이스라엘 Elbit Systems Land & C4I와 M113 장갑차 28대 개량을 골자로 하는 1,9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8대 가운데 14대는 퇴역한 Scorpion CVR(T) 장갑차를 활용해 포탑을 개량하고, 6대는 12.7mm 기관총 포탑, 4대는 25mm 화포 포탑을 장착하고, 나머지 4대는 특수 수리·구난용 형상으로 개조하였다. 개량된 장갑차는 2016년부터 인도되었다.

해군

- 향후 20년간 필리핀의 국방조달 예산의 대부분은 공군 및 해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 투자될 예정으로,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인 '전략 항해 계획 2020 (Strategic Sail Plan 2020)'은 단기적으로 해적, 테러리즘, 마약 밀매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보강을 목표로 한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르는 장기 계획으로서 더 넓은 영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호위함 : 2016년 9월 한국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HHI)은 필리핀 해군용으로 2척의 호위함 건조 발주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HDF-3000 다목적 호위함 설계를 홍보했는데, 이 설계는 한국 해군의 인천급(FFX-I) 유도탄 호위함의 기초로 사용된 바 있다.

- 잠수함 : 경제적 제약요인들이 장애가 될 것이지만 필리핀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대 말 이전에 잠수함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필리핀 해군은 잠수함 요구성능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잠재 후보 확인을 위한 일련의 조사를 실시 중이다.

- 연안 경비함 : 필리핀 해군은 헬리콥터 탑재 연안 경비함(Offshore Patrol Vessel, OPV) 1~2척을 해외업체의 설계에 따라 국내 건조 방식으로 조달하고자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al Sea Systems Command, NAVSEA)는 대외 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 FMS)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1년 5월 잠정 공급자를 물색하기 위한 정보요청서를 발송하였다. NAVSEA의 요청서에 따르면, OPV의 핵심 요구조건은 '성능이 입증된 선체 설계를 바탕으로 한 신규 건조 함정'이어야 한다.

- 전력투사함(Strategic Sealift Vessel, SSV) : 필리핀 국방부는 2013년 6월에 SSV 2척 조달을 위한 40억 페소(9,000만 달러) 규모의 입찰 참가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목적

상륙수송함 사업을 대체하여 규모를 축소한 이 사업은 배수량 약 7,300톤, 선체길이 120m, 선폭 21m, 최대속도 13kt인 도크형 상륙함(LPD)에 대한 소요도 제기하였다. 필리핀 해군은 인도네시아 PT PAL로부터 동사가 인도네시아 해군에 기납품한 Makassar급 LDP를 모체로 한 함정을 도입하는 계약을 2014년에 체결했으며, 두 척 모두 2017년 인도되었다.

공군

- 향후 20년간 필리핀의 국방조달 예산의 대부분은 공군 및 해군 현대화를 지원하는데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공군 현대화 계획인 ‘비행 계획 2028(Flight Plan 2028)’은 소위 필리핀 방공식별구역(PADIZ)과 서필리핀해 해역에 걸친 어떠한 침입도 탐지 - 요격 -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에 기반하고 있다.

- 근접항공지원기 : 필리핀 국방부는 필리핀 공군(Philippine Air Force, PAF)용 근접항공지원기(Close Air Support, CAS)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말 Embraer EMB 314 Super Tucano 6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거래에는 미래 소요 충족을 위해 항공기를 추가 획득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공격기 : 필리핀 공군은 2014년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 12기를 4억 2,0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초도수량 2기는 2015년 말에 인도하고 잔여 수량은 2017년까지 인도를 마쳤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장기적으로 24기의 FA-50을 조달할 것이라는 장기 획득 계획을 공표하였다.

- 다목적 전투기 : 필리핀 공군은 자금 압박에 따라 조달이 지연될 수 있지만, 당초 2020년까지 1개 비행대대(12기)에 달하는 수량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동 사업이 실제 진행될 시 Gripen 항공기를 보유 중인 Saab가 유력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필리핀 공군은 Lockheed Martin F-16C/D 전투기(미 공군의 잉여 수량) 구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공군이 보유했던 Northrop F-5A/B Freedom Fighter 최종 수량이 2005년 10월 퇴역한 이후 해당 전력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초계기 : 필리핀 공군용으로 2대의 장거리 초계기를 발주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시도된 국방부의 입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지만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의 부족이었다. 동 사업은 2018년 재추진되었으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원래 2014년 시작되었으나, 다른 국방조달 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입찰 참여 기업들이 기술적 이유에서 결격 판정됨에 따라 계약단계로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 공격헬기 : 필리핀 공군은 1990년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MD 500 경공격헬기 12대를 운용 중이며, 2012년부터 8대의 PZL Swidnik W-3A Sokół 공격헬기, 2014년 Augusta Westland로부터 AW109E Power 경공격헬기 8대를 획득하여 운용 중이다. 2017년 말 공군은 공격헬기를 20대 이상 추가 조달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나, 기종은 미정이다. 2018년 말 필리핀 국방부는 터키의 T129 ATAL 플랫폼이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3. 예산지출 전망

- 필리핀 국방비는 총체적 빈곤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두테르테 정부의 공약을 기조로 2017년 이후 국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가 있지만, 2020년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 2020년 국방예산 변동

- 필리핀의 GDP는 2020년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1년의 국방예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 19가 잠잠해짐에 따라 2021년에도 2020년과 비슷한 비율로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내부 반란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국방예산의 증가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 필리핀의 국방 예산은 당초 PHP191.7 billion으로 편성되었으나, 7월 중에 PHP181.8 billion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실질 지수 기준으로는 2019년 대비 2.2%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의 영향으로 2021년 국방 예산은 실질 지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5.439 B\$)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2017~2024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Jane's Defence Budget 자료)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방예산 (Bil\$, 20년 불변가)	4.284	5.075	5.084	5.111	5.439	5.617	5.688	6.212
성장률(%)		18%	0%	1%	6%	3%	1%	9%
연평균성장률 (CAGR, %)	9%			5%				

나. 군종별 국방 지출 전망

-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을 군종별로 살펴보면,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17.9억 달러로 전체 국방 예산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해군 6.6억 달러(13%), 공군 7.2억 달러 (14%)를 차지했다.
- 군종별 국방 예산 비중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향후 2024년까지도 큰 변동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군종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Jane's 2020 자료, 단위 : Bil\$)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육 군	1.275	1.389	1.924	1.794	1.943	1.884	1.998	2.157
해 군	0.640	0.569	0.708	0.664	0.759	0.741	0.784	0.843
공 군	0.701	0.647	0.764	0.717	0.869	0.836	0.883	0.945
전군지원	1.668	2.470	1.689	1.937	1.867	2.156	2.217	2.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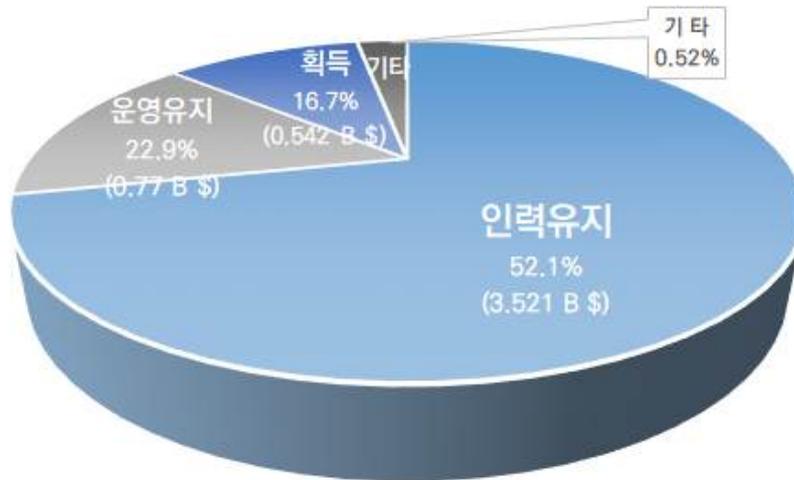
[그림 2-7] 군종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Jane's 2020 자료)

다. 지출 분야별 국방 지출 전망

- 국방예산은 대체로 인력 및 군 운영 유지에 전체 예산의 약 75%가 투입되며 그 외 획득 및 연구개발 외 비용들로 지출된다.
- 아래 표의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중 획득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1년부터 전체 예산은 회복되는 추세이며 획득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2021년 이후에도 별다른 증가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필리핀은 자국 내 연구개발보다는 구매를 통한 조달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Jane's 2020 자료, 단위 : Bil\$)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획득	0.657	0.562	0.677	0.542	0.722	0.725	0.761	0.795
연구개발	0.002	0.003	0.003	0.003	0.004	0.004	0.004	0.004
인력유지	2.707	3.580	3.500	3.658	3.676	3.936	4.084	4.287
운영유지	0.711	0.760	0.786	0.770	0.931	0.826	0.898	1.003
기타	0.208	0.170	0.118	0.140	0.106	0.127	0.134	0.122



[그림 2-8] 지출 분야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Jane's 2020 자료)

4. 방위산업역량 및 육성정책

가. 방위산업역량 개관

- ❖ **[방위산업 육성 현황]** 필리핀의 역대 정부들은 자주적 방위 태세(Sel-Reliant Defence Posture; SRDP)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필리핀군은 대반란작전을 수행하고 반정부 테러에 대처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진력해왔다. 필리핀의 방위산업 기반은 재정상의 제약과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방위산업 규모]** 군수물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소수 공기업들과 중소기업 30-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2천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국영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은 아스널이며, 가장 큰 민간기업은 필리핀의 무기회사(Armscor, Arms Corporation)이다. 이 두 기업은 기본적인 화기, 탄약, 추진제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⁰⁾
- ❖ **[방위산업 능력]** 필리핀의 방위산업 기반은 그 범위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산업 능력이

20) 필리핀 현지 주요 방산기업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3. 참고

그나마 발전한 분야의 경우, 반란 및 테러와 관련된 위협과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필리핀군의 소요에 직접 대응해 왔다. 일부 역량은 육상 및 해양 기본 시스템, 통신/전자 장치 및 일반 군수장비의 개발, 생산 및 지원에 있다. 제한된 군수품(총탄 45구경서 박격포 81mm까지)과 소형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체들은 주로 소형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또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소형 항공기 조립 및 서비스 C-130을 포함한 PAF 자산에 대한 기본 유지보수(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가 포함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MRO 사업은 원 장비 제조업체가 아웃소싱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지표]** 주요 지표는 필리핀 방위산업이 일부 해군 함정, 저기술 군수품, 소형 무기를 필리핀군(AFP)에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산업기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조달하였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은 AFP의 지상군과 해군의 일부 장비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그 비율은 국외 수입 총액의 10%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태국과 같은 산업기반이 허약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나. 분야별 방산역량

■ 지상 분야

- 필리핀의 지상 전력 체계는 국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요구에 대응하여 발전해 왔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에서는 확장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소형 무기와 탄약의 연구, 개발, 생산 능력은 비교적 강하게 발전해 왔다. 일부 역량은 기본 군용 차량의 정비에 활용하고 있다.

- 필리핀의 화기와 탄약 부문은 정부 소유의 정부 조병창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Armscor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두 부문은 모두 화기, 탄약, 추진제, 카트리지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맡고 있다. 이 회사들은 필리핀 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과 추진제뿐만 아니라 군사, 법 집행, 개인 보안 및 스포츠 용도의 소총과 권총 제조에 전문을 두고 있다.²¹⁾

21) 필리핀 현지 주요 방산기업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3. 참고

- Armscor는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목표(주로 CUP 상 계획된 조달에 기초함)로 기획한 반면, 아키노 행정부는 장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모색하는 법안 제안을 통하여 정부 조병창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과거의 문제들로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필리핀 군(AFP)의 전략적 요구와 군이 대응해야 할 반란 수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 필리핀 산업도 1990년대 국내 최초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에 따라 BAE 시스템 설계 군용 차량(GKN Defence Simba 경전투차)의 면허생산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후속 차량 수요가 없어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민간 기업인 스틸크래프트 산업개발공사(Steelcraft Industrial & Development Corporation)는 MX-8 호위차량과 같은 바퀴 달린 병력수송 차량장갑차 시제품을 다수 개발했지만, 이 중 생산에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분야

- 필리핀 조선업은 2004년 외국계 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하고 조선 수리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국내 최강 산업 분야로 떠올랐다. 2017년 기준 필리핀은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상업용 조선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필리핀의 해군 조함은 상업 부문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필리핀의 가장 강력한 방위산업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215톤급 아귀날도(Aguinaldo)급과 49톤급 호세 안드라다(José Andrada)급 초계함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여러 종류의 해군 초계함을 국산으로 개발하고 건설한 것에 의해 확인된다. 동 함정들은 Atlantic Gulf & Pacific Company 회사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같은 이름의 필리핀 해군기지에 위치한 해군 캐비이트 조선소에 의해 건조되었다. 많은 다른 민간 조선소들도 필리핀 해군 선박의 수리 및 유지 및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모든 대형 해군 함정의 건조는 해외에서 진행된다. 한 예로, 2014년 1월 인도네시아의 PT PAL을 선정하여 7,300톤에 달하는 2척의 전략적 해상수송 선박을 건조하였다. 2015년 10월에 재개된 프로그램인 필리핀 해군의 자킨토(Jacinto)급 호위함에 탑재된 무기 및 화재 통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또 다른 요구도 해외 계약자에 의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 분야

- 군사 항공우주 부문에 있어 필리핀은 제한된 기술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소형 항공기를 생산 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필리핀 기업들이 조립한 PAF 고정익 및 회전식 플랫폼에는 BO 105 경헬기, 브리튼노만 BN2A 아일랜드어 수송기, SF-260F/PAF 및 S.211 훈련기 등이 있다. PAF 고정익 및 회전 항공기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유지보수(Maintenance, Repair, Operation, MRO) 서비스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다.

- PADC를 포함하여 이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고정익 플랫폼에는 C-130, T-41D 메스칼레로, Alenia Aermacchi SF-260TP, Fokker F27-200 Friendship이 포함된다. 헬리콥터는 PZL-Swidnik W-3 Sokol과 Sikorsky S-76A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 MRO 기능은 Clark Air Base에 주둔하는 필리핀 공군 제 410 유지보수 팀에 의해 제공된다.

- 통신, 항법 및 기타 항전 시스템의 MRO 지원은 산업 제휴나 국방 절충교역을 통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전한 후 산업 역량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MRO 계약은 아웃소싱 되며, 특히 요구사항이 더 정교한 계약은 아웃소싱 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Technologies Aerospace가 필리핀 공군의 Bell UH-11H 헬리콥터에 종합군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국영 필리핀항공우주개발공사(PADC)를 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항공우주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9년에 이관되었으며, 필리핀 공군이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MRO와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으로 필리핀 공군을 대신하여 필리핀항공우주개발공사가 군사 항공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Plan Velocity'라는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C4ISR 분야

- 필리핀 군(AFP)의 전략적 요구 사항과 직면하고 있는 지리적 불편함은 필리핀에서 군사 통신과 항법 시스템 분야에 제한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밀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부문은 아웃소싱 부족으로 인해 국내 연구개발 역량은 후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필리핀 기업들은 일부 국산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스템과 기술의 정비와 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Marjeds

Systems는 육상 차량, 선박 및 항공을 위한 다양한 주파수 및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 이 부문은 또한 필리핀군(AFP)이 군도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감시 시스템 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형 전술 무인항공기(TUAV)를 설계, 개발 및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군(AFP)이 도입할 국산형 TUAV 시스템에는 어순타(Assunta)와 알레산드라(Alessandra)가 포함된다. 이 두 무기체계는 모두 여러 중소기업에 의해 설계 되었으나, 과거에 추가적인 UAV 요구사항은 아웃소싱하여 작업하였다.

다. 정부지원정책

❖ **[공동개발 중시 정책]** 현재 두테르테 정부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 간의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외국 조달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토대로 국가 세입 증대와 숙련된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과의 공동 생산 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 정책 기조는 미국에 대한 오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과 역량을 추진 및 축적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 프로젝트 중 일부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려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2019년에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다수의 새로운 협정에 의해 협업에 대한 강조가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러시아가 필리핀에 경무기 시설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체코, 일본과도 산업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마련되었다.

❖ **[정부 아스널 방위산업 단지(GADIE)]** 자주적 방위 테세(Self-Reliant Defence Posture, SRDP)라는 기치 하에 필리핀 최초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정부 아스널 방위산업 단지(Government Arsenal Defence Industrial Estate, GADIE)라는 이름의 산업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GADIE는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북부 중부 루손 지역의 바탄 지역에 있는 정부 조병창의 기존 부지 근처에 위치할 예정이다. GADIE는 정부 소유가 할 것이나 정부 조병창에 의해 관리될 것이며, 증가하는 필리핀군의 장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이 군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GADIE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²²⁾

5. 국방 절충교역 제도²³⁾

가. 개요

- 필리핀은 1993년부터 절충교역 및 무역 역조 정책을 운용해 왔음. 이 정책은 정부조달 정책위원회(GPPB)의 행정명령 제120호(1993)와 결의안 제14조-2005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정책은 1백만 USD 이상의 수입품에서 역거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필리핀의 절충교역은 대통령령 120호(Executive Order No. 120)에 따라 시행되며, 절충교역은 직접절충교역과 간접절충교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상계무역 및 절충교역 정책은 필리핀 무역산업부 산하의 국제무역공사(www.pitc.gov.ph)에서 관리하고 있다.²⁴⁾

나. 종류 및 내용

- 절충교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응구매(Counter-purchase) : 기본 공급업체가 필리핀에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의무를 수락하는 협정이다.
 - 오프셋(Offset) : 필리핀의 이익을 위해 주요 공급업체가 판매 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산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도입하는 협약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투자, 기술 이전, 연구 개발, 훈련 및 기술 업그레이드, 기부와 보조금이 포함된다.
 - 제품 구매(Product buy-back) : 판매자/공급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작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지불에 동의하는 협정이다.
 - 상품에 대한 채무(Debt for goods) : 채무국이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미지급 채무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지불을 부담하는 거래 형태이다.
 - 빌드-작동-전송(Build-operate-transfer) : 외국 계약자가 현지 사업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22)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23)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24) http://www.pitc.gov.ph/images/CountertradeDowns/Countertrade_Policy_Brief.pdf

- ❖ 행정명령 제120호에 따라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모든 국방조달 사업에서 절충교역 조항이 시행되며, 외국 공급업체의 절충교역 의무가 정부와의 공급계약 가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대부분의 조달 사업에서 주계약 가치의 50% 할당량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입찰 문서를 제출할 때 절충교역 제안이 필요하며, 관련 협약은 주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90일 이내에 서명되어야 한다.
- ❖ 외국 공급업체는 통상 2년에서 3년 이내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외국 공급업체 혹은 그 현지 파트너 기업은 이행하지 못한 미충당금의 5~10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필리핀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 ❖ 행정명령 제120호 및 시행 규칙 및 규정에는 '의무 활동'의 2배에서 5배까지의 가산 승수를 제공해야 한다. 가산 승수율은 사업에 따라 필리핀 국제무역공사(Philippine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 PITC)와 외국 계약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다.

다. 향후 전망

- ❖ 절충교역과 기술 이전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대거래를 국가에 대한 편익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 ❖ 현지 절충교역 정책의 추진이 다소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절충교역 적용이 어려운 필리핀 방산 거래 메커니즘 때문이다. 필리핀은 여태껏 주로 미국 장비를 구매해왔고, 필리핀이 오랫동안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다른 나라들도 중고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기술력과 전문 기술 인력이 상대적으로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의 계약자가 기술이전을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6. 수출 장애요인²⁵⁾²⁶⁾

- ❖ 필리핀의 획득 정책 및 의사결정 절차, 주요 획득 프로그램, 예산 편성 현황, 방산역량 등의 국방조달 시장 환경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필리핀의 중기 경제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나 단기적으로는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의 악영향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방산 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및 획득의 불투명성, 낮은 화폐가치, 부족한 투자 등 내부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 방산 기업의 필리핀 방산시장 수출 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야기한다.
- ❖ **[부정부패 및 획득의 불투명성]** 과거 필리핀 국방획득 노력은 부실한 행정 절차와 미흡한 규정 및 제도, 부정부패의 만연 등의 요인으로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 개정된 필리핀 군 현대화법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등 전략적 위협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국방획득 역량의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 ❖ **[낮은 화폐가치]** 폐소화 가치의 하락세는 현지의 입장에서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및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에 따라 필리핀이 수입 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원-페소 환율 : '20. 7. 13. 기준 1페소=24.34원) 방산수출은 일반 물자와는 달리 복합 무기체계와 연계하거나 후속 군수차원의 수출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적 특징으로 인해 계약에서 최종 제품 인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 ❖ **[부족한 투자]** 경제불황으로 인한 예산 제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한 편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 **[코로나-19]** 2020년 전세계에 대유행한 코로나-19로부터 필리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코로나-19는 필리핀의 경제 및 국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필리핀은 2020년 4월2일 현재 9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311 건 발생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전면 중단, 수도 마닐라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시행했다. 이는 필리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3월 9일 기준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최근 4년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6.76%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날 국민경제개발원 (NEDA)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7.5%에서 5.5%~6.5%로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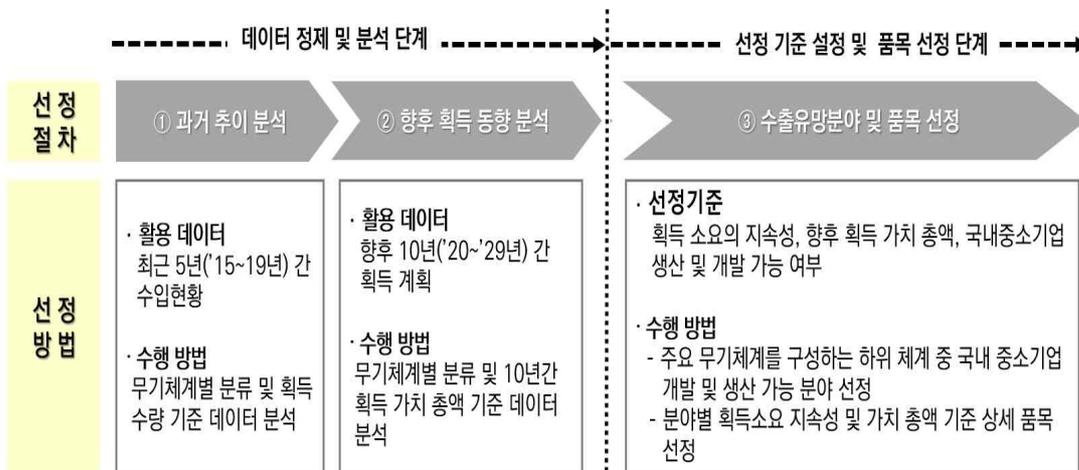
25) Global Data, The Philippine Defense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5

26)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 · 윤자영 · 김이곤, 2014.6.

이러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방 분야를 비롯한 필리핀 전방위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 수출 유망 품목²⁷⁾²⁸⁾

- 필리핀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본 절에서는 최근 무기수입 현황을 통한 최근 수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10년 ('20년~'29년) 간 획득 계획 분석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도출하였다.
- 또한, 과거 수입현황과 획득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유망 체계 중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해당 획득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림 2-9]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필리핀 무기 수입 현황²⁹⁾

- 필리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 간의 무기 수입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항공기, 함정, 센서, 엔진, 미사일, 기갑차량, 포 순이다.

27)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28)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 · 윤자영 · 김이곤, 2014.6.

29)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Trade registers (www.sipri.org)

- 이 중 항공기, 함정, 센서, 엔진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의 해상 침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⁰⁾

[표 2-7] 필리핀 2015~2019년 체계별 수입 현황 (SIPRI 자료, 단위:UNIT)

체계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항공기	114	67	136	11	61	389
함정	6	153	86	0	60	305
센서	4	4	29	3	30	70
엔진	10	6	18	0	6	40
미사일	0	0	6	4	23	33
기갑차량	16	0	0	0	7	23
포	0	0	4	0	0	4
기타	2	0	0	0	0	2

* 표기 년도는 발주년도를 의미함

나. 향후 10년 간 획득 계획

- 필리핀의 향후 10년(2020~2029년)간 획득소요 중 진입 기회가 존재하는 계약자가 미확정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예상획득계획만을 아래 표와 같이 무기체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지휘통제체계, EO/IR, 통신체계, 시뮬레이션, 무인체계(UAV, UGV 포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필리핀 2020~2029년 체계별 획득 계획 (단위:Mil\$)³¹⁾

체계구분	확정획득계획	예상획득계획	총 계
항공기	681.05	2991.93	3672.98
함정	-	1706.54	1706.54
기갑차량	406.92	474.11	881.03
통신체계	75.38	444.99	520.37
레이다	136.11	354.73	490.84
미사일	29.74	424.55	454.29
지휘통제체계	112.25	275.56	387.81
EO/IR	202.56	137.44	340
유도무기	105.18	127.86	233.04
소나	4.79	33.15	37.94
UAV	15.38	14.47	29.85

30) GlobalData, Philippine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5

31)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체계구분	확정획득계획	예상획득계획	총 계
시뮬레이션	19.57	-	19.57
UGV	2.28	-	2.28
총합계	1791.21	6985.33	8776.54

* 확정획득계획 : 필리핀 정부가 공표한 획득소요로 계약자가 미확정인 계획
 예상획득계획 : 각종 정보처를 활용한 향후 예상되는 획득계획

- ❖ 지휘통제체계, EO/IR, 통신체계,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분야는 완성체계에 대한 후속 획득인 경우가 다수로 이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당 완성체계를 공급하는 방산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³²⁾
- ❖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4차 산업 기술 개발 정책 및 자국 방산 자립도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당분간은 무기 조달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 ❖ 과거 5년 간 수입현황 및 향후 획득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필리핀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통신체계, 지휘통제체계는 국내외 대기업의 체계 수출로부터 파생한 부분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조차 자체적으로 현지 획득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 지휘통제체계 분야

 - 지휘통제체계 분야의 수요는 함정을 비롯하여 항공기, 기갑차량 등 무기체계의 획득 및 업그레이드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 단위의 획득 시 통신장비의 획득 역시 동시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국방획득계획을 ADAS와 같은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공표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획득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상기한 국방획득계획을 비롯하여 ADAS 등 현지 전시회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

32) 각 유망 체계별 상세-추가 획득 계획 내용은 부록1. 향후 획득계획을 참고 바람

[표 2-9] 필리핀 2020~2029년 '20~'29년 지휘통제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단위:Mil\$)³³⁾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NG Strategic C2	48.26	필리핀 정부가 ADAS 2018에서 공표
PSOH OPV Future CMS	34.76	필리핀 정부가 ADAS 2016에서 공표한 연안경비정(Offshore patrol vessel, OPV) 획득에 따른 수요
FFGHM Future CMS	28.14	필리핀 국방획득계획 중 수상 전투 함정 획득에 따른 수요
예상획득계획		
HLS C2	25.54	지휘 센터, 정보 센터, 제어반, 센서, 소프트웨어, 조립 등을 포함한 수요
Joint C2 System	16.50	필리핀 정부가 시사한 미래 Joint C2 System 구축 예상 수요
Ground based anti-aircraft (SAM) CP	13.97	수명주기를 고려한 예측

☒ 통신체계 분야

- 통신체계 분야의 획득계획은 크게 군별 통신체계의 종합적 업그레이드와 플랫폼 내 통신체계의 노후회에 따른 파생수요로 구분된다. 군별 통신체계의 종합적 업그레이드는 범위와 금액 규모가 크므로, 기업의 단독적인 마케팅보다는 다른 제조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 플랫폼 내 통신체계의 노후회에 따른 파생수요의 경우, 각 플랫폼 구성품 형태의 획득 수요가 대부분으로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편입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강구해볼 수 있다.

[표 2-10] 필리핀 '20~'29년 통신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³⁴⁾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Information Systems Upgrades	181.89	현지 육·해·공군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Combat Net Radio	38.92	전술통신 및 향상된 보안체계 필요

33)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4)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Manportable HF Radio	20.34	필리핀 정부가 ADAS 2018에서 공표
예상획득계획		
Light Armoured Vehicle VHF Radio	26.55	수명주기를 고려한 예측
Light Armoured Vehicle ICS	6.64	수명주기를 고려한 예측
M113 VHF Radio	6.34	M113 114대의 획득을 고려한 예측

EO/IR(전자광학/적외선) 시스템

- EO/IR(전자광학/적외선) 시스템의 주요 획득 계획을 살펴보면 적외선 감지 시스템, 시야 확보 및 거리 추적과 관련된 수요가 대부분이다.
- 이들은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중소·중견 기업에서 단독 제작 및 연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과 정부차원의 과제 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EO/IR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진출가능한 분야로는 적용 기술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고글(goggle) 및 투시경(sight)을 꼽을 수 있다.

[표 2-11] 필리핀 '20~'29년 EO/IR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³⁵⁾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13.52	먼 거리의 항공기를 파악하는 적외선 감지 시스템
Gunner's Sight	13.32	총기 발사 직전 타겟 식별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용도
Commander's Sight	11.72	지휘관의 타겟 파악, 관찰 및 식별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획득 용도
예상획득계획		
Targeting Turret	14.60	경량화 및 소형화, 열 감지기/고화질 카메라/레이저 거리추적기 탑재 필요
Gunner's Sight	14.41	열 감지기, CCD 센서, 레이저 거리추적기 탑재 필요
Portable Designator/Rangefinder	12.77	각종 테러리스트 및 반란군 진압을 목적으로 함

35)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분야의 수요는 주로 항공용 지상훈련시스템이 대부분으로, 이는 운용 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소요로 파악된다.
- 시뮬레이션 분야는 방산분야 중 국내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선두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분야이며, 원천기술 또한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이전에 대한 반발 제기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현지 군사 데이터를 받아 S/W화하는 절차상의 특징이 있어, 현지의 결정만으로도 사업화가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하여 장기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시뮬레이션 분야는 비단 훈련뿐만 아니라 군 전력분석, 전투실험, 무기체계 개발 단계의 요구분석, 설계, 시험평가 등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대 무기체계가 보다 첨단화, 복잡화, 연동화될수록 M&S 기술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게임과 같은 분야와도 연계하여 상호 발전 및 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하므로 중견·중소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³⁶⁾

[표 2-12] 필리핀 '20~'29년 시뮬레이션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³⁷⁾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예상획득계획		
Philippines MPA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6.99	해양 구난 항공기(Maritime Patrol Aircraft, MPA)의 지상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 및 시설 등 포함
Philippines ELINT Aircraft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3.91	전자 정찰기(Electronic Signals Intelligence, ELINT)의 지상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 및 시설 등 포함
Philippines 208B Grand Caravan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2.35	208B 대형 캐러밴 항공기(Grand Caravan Aircraft)의 지상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 및 시설 등 포함

36) 과학기술정책 통권 207호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ology', 국방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박삼준, 2015..

37)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인체계

- 대내외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필리핀 공군과 해병대 소요 및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중고도 무인항공기 소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무인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각광받는 분야로, 현재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무인체계 시장은 UAV, UGV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육·해·공을 망라한 전 분야의 무인화 추세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 탐구가 필요하다.

[표 2-13] 필리핀 무인체계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³⁸⁾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Philippines Marines UAV	14.47	필리핀 정부가 해병대 병력 강화를 위한 UAV 구매를 공표
예상획득계획		
Philippines Air Force UAV	15.38	Blue Horizon-2의 대체수요
Medium UGV	2.28	조달 가능한 UGV의 추정수요

38) Jane's Market Forecas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3장

시장진입 전략

3

제

장

시장진출 전략

제 1 절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제 2 절 시장 진출 전략

제 1 절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³⁹⁾⁴⁰⁾⁴¹⁾

1.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필리핀의 경제, 정책, 예산, 조달과정, 경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시장 환경 특성을 구분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장 환경 특성을 반영 도출한 시장 진출 전략은 다음 절에서 다뤄보겠다.



[그림 3-1] 필리핀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39) 위탁연구용역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40)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필리핀'

41) Global Data, "The Philippine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5"(2020.3)

2. 강점(Strengths)

- ❖ **[도입선 다변화 및 자주국방 노선]**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들어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미국의 독과점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 **[국방장비 수요 지속]** 필리핀은 전투기·전투함 및 잠수함 획득을 계획 중이다. 정규군 이외에도 준군사조직인 국립경찰 및 해양경비대도 한국의 주요 고객이다. 약 10만 명 규모의 국립경찰과 해양경비대는 반군세력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량 총기류·탄약을 구매하였다. 현지 국방 예산 또한 지속 증가할 예정으로, Jane's 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필리핀의 국방예산의 연평균성장률은 5%이다.

3. 약점(Weaknesses)

- ❖ **[국방조달 절차의 비효율성]** 공인된 국방획득 절차는 오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필리핀은 획득 절차가 복잡하고도 불분명한데다 획득 시기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경향이 강하며, 지역 세력 규모와 정치적 이해관계 및 각 세력 다툼에 따라 국방획득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 **[한정적인 국방예산]**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에 비해 필리핀의 국방예산은 낮은 수준이며, 국가의 경제성장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방 예산의 상승률이 과거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Jane's 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 필리핀의 국방예산의 연평균성장률은 9%인데 반해, 2020~2024년 사이에는 5%이다.
- ❖ **[빈번한 사업 지연]** 부패,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조달 절차, 지속적인 자금 조달 제약 등의 빈번한 주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기 쉽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자인 해외 기업에게 전가된다.
- ❖ **[저가 장비 선호]** 최근 필리핀 경제의 높은 성장률이 군 현대화의 동력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력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국방예산 제약으로 인해 필리핀은 국방장비 구매 시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다. 도입선 다변화와 가격 우선정책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장비 혼용으로 군이 사용해온 미국산 장비의 노후화에서부터 최근 도입한 다국적 장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

4. 기회(Opportunities)

- ❖ **[3중고의 안보위협으로 인한 수요]** ①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한 고강도 충돌 가능성, ② 반정부 세력의 테러 위협, ③ 마약 밀매에 따른 치안 공백 위협으로 인해 필리핀에는 방산 장비의 수요가 상시 존재한다. 2019 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 9위의 테러 위험국이다.
- ❖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필리핀은 미국 이외의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근접성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정치적 유대로 인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년간 자주적 방위 태세(Self-Reliant Defence Posture, SRDP)사업을 한결같이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상태로, 강력한 국방 및 방산 기반을 구축한 한국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미국산 체계들의 후속지원에 과다 예산이 소요되며, 중국산 장비들은 낮은 품질로 인해 잦은 고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산 장비들은 이들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 **[기존 한국장비 구매이력]** 필리핀의 육·해·공 3군 모두 한국산 무기체계 및 장비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자국의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호의적이기도 하다. 자국 방산 기반의 강화 의지와 한국산에 대한 높은 신뢰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증진에 호기로 작용한다.

5. 위협(Threats)

- ❖ **[한국에 대한 현지 인식 변화]** 한국은 미국산 체계에 과다 의존해 오던 필리핀이 두테르테 정권의 출범으로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가장 큰 이득을 본 우방국이나, 최근 들어 필리핀 시장에서의 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체계 판매를 우선시하면서 소요군에 대한 후속지원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다.
- ❖ **[타국가의 경쟁력 향상]** 현지에서는 체계 성능, 가격, 국제 영향력에서 우세한 이스라엘 업계의 시장 확대가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은 장비의 저렴함에 더해 산업협력 등의 기타 유인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 등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절충교역 강화]** 필리핀 현지에서는 자국 방위산업 기술 발전, 수출 증진, 경제적 이득 등의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현금 결제 대신 계약상의 절충교역 비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 유출, 대금 납부 지연 등의 위협이 존재한다.

제 2 절 시장 진출 전략

1. SO 전략 (강점-기회 전략)

가. 우방관계를 활용한 지속적 마케팅 노력

- 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보 이해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필리핀은 한국과 1949년 5번째로 수교하였고 6·25전쟁 시 약 7,420명을 파병하는 등 조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과거 거래이력으로 인해 신뢰성 및 협력관계가 이미 구축되어있는 등 한국은 신흥 경쟁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하여 기업 차원에서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준다면 향후 한국은 필리핀의 군수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ST 전략 (강점-위협 전략)

가. 산업전반에 걸친 절충교역 지원

- 절충교역은 구매국의 무기수입 시 요구하는 대표적인 전제조건 (prerequisite) 중 하나로, 필리핀의 경우 기술이전·공동생산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등의 간접절충교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필리핀의 절충교역 의무비중은 구매금액에 따라 다르나 1억달러 이상의경우계약 총액의80% 이상이다. 필리핀은 인프라 구축 및 한국형 경제성장 발전 모델 도입 등을 희망하고 있어, 방산수출 시 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매국이 요구하는 충교역 수요를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도로, 철도, 전력, 통신, 항만 등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국내 민간업체를 활용한 간접절충교역(indirect offset)을 통해 이를 제공 시 방산수출 성공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WO 전략 (약점-기회 전략)

가. 잉여 군수물자를 활용한 포괄적 패키지딜 제공⁴²⁾

- ▣ 현행 ‘불용 및 잉여 군수물자 이양제도’를 신규 무기체계 수출과 키트 형태로 제공하여 판매력(Selling Power)을 제고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우수한 무기를 많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나, 최근 경제력 향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최신 무기체계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잉여 도태물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대부분의 중·후진국들은 중고 및 잉여장비의 무상양도를 매우 선호하고 있어, 향후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등 신규 무기체계 수출과 연계 시 판매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를 통해 국내 방산제품의 판매력(Selling Power) 제고뿐만 아니라, 잉여장비 제공에 따른 창정비 등 부가적인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방부 내의 잉여 도태물자에 대한 파악 및 정보공개를 통해 KODITS,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4. WT 전략 (약점-위협 전략)

가. 획득 핵심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 필리핀은 국방 획득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획득 의사결정이 물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내 획득 관련 인사 파악과 더불어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이전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의 입찰 관련 상세 절차는 비공개이므로, 현지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적으로는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go.kr)을 접속하여 도움을 받거나, 한국 국방무관, KOTRA 지사 등을 통하거나, 현지에서는 한국계 사업가들의 조력을 구하거나, 필리핀 국방부 획득 관리들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등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42)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윤자영·김이곤, 2014.6.

5. 필리핀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가. 군사 원조⁴³⁾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국방예산 부족에 직면해왔다. 그 결과, 군수품 공급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 원조는 방산 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및 대외군사금융(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였다. 하지만 필리핀은 군수품 조달처의 다변화를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약 5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필리핀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지만 당분간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국방예산의 대폭 확대는 어려우므로, 근시일 내 이러한 군사 원조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므로 군사 원조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 전략이 유리하며, 이는 기업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에이전트 활용

필리핀에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지역 한인회, 민주평등 동남아북부협의회, 한국상공회의소, 무역인협회, 한인경제인연합회 등 다양한 교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언어가 통하는 한국계 사업가들을 통해 현지 에이전트들을 소개받기가 가장 쉬운 일일 것이며, 또한 적지 않은 교포 사업가들이 방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다. 현지 에이전트 검증과 관련하여, 기품원에서는 방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외 방산에이전트사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품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http://www.dtaq.re.kr/ko/notice/notice.jsp?mode=view&article_no=148187&board_no=25)에 안내되어 있다.

43) GlobalData, Philippine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5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4 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제 4 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제 1 절 정책제안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정책제안

1. 정부 협력차원의 정책

가. ASEAN 국방협의체 활용

-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준 국가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권역 내 공동체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총 10개국이며, 가입 후보국으로는 동티모르가 있다.
- ASEAN은 크게 3가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가 그것이다. 그 중 정치안보 공동체 예하 아세안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는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 강화 및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 출범되어 2~3년 주기로 개최되다가 2018년부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⁴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는 군용기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는 등,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 필리핀 역시 ASEAN의 회원국으로 기타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에 대한 접근은 필리핀 단일국뿐만 아니라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SEAN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APT(ASEAN Plus Three, ASEAN + 한·중·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국방 분야에서도 지속 확대한다면 ASEAN을 이용한 필리핀뿐만 아니라 필리핀 시장과 더불어 동남아 권역 전체를 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GtoG 프로그램 개발

- 필리핀 정부는 행정명령 제169호에는 "브로커와 중개인"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필리핀의 획득 및 구매에는 브로커 및 에이전트의 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정부 대 정부(GtoG) 방산협력 사업을 기업 대 기업(BtoB)

44)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asean-ko/brd)

형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 필리핀은 고가의 전략체계 구매를 위한 G2G 협력을 제외한 모든 구매를 현지 중개역이 국외 구매-군납하는 중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 여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획득 소요는 많으나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필리핀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GtoG 차원의 협력 대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 대상과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인 접근 방안도 유효하다.
- ❖ 이를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생산라인 설립 및 기술이전 소요를 검토, 그 결과를 우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지 진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기계·재료 부문에서 기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 진출 기회를 얻지 못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필리핀에서는 정규군 이외에도 준군사조직인 국립경찰 및 해양경비대도 한국의 주요 고객으로, 10만 명 규모인 국립경찰과 해양경비대가, 반군세력의 테러에 대처 위해 상당량 총기류·탄약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방안

가. MRO 사업 활성화 지원

- ❖ 체계 중심의 현지 수출은 지속되는 반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필리핀 양자협력 발전을 위해 체계 수출과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조립·정비사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 ❖ 향후 필리핀 방산시장에 대한 접근은 우리 방위산업의 구조상 대기업 위주의 완성 장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방산중소기업 또한 현지 조립·정비사업 및 임무 장비 중심의 기술개발과 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필리핀군이 장기간 운용하면서 노후도가 높아진 체계에 장착된 주·야간 조준경, EOTS, 전자전 장비, 소나, 레이더 등은 대부분 노후되어 성능 발휘가 되지 않거나 성능 자체가 노후화되어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현지 맞춤 제작 및 성능개량, 부품 교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초계함(PCC) 및 호위함(FF)을 비롯해 중소형 함정들에 탑재되는 전투체계의 성능개량 및 부품 교체 영역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므로, 이같은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시장성 분석 또한 필요하다.

나. 체계기업 및 부품기업 대상 2-TRACK 지원

Track 1 : 체계 업체 지원

- 필리핀은 최근의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기반이 미약해 부품 공급과 정비를 여전히 상당 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군·경찰이 장비 노화로 인한 낮은 가동률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필리핀의 소모성 장비, 체계의 정비·수리, 부품 시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좋은 시장 여건이다. 필리핀의 입찰 공고가 탑재되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및 획득의사 결정 절차가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편이므로, 군 및 국방부의 소모품·부품 소요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이들과의 적정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Track 2 : 부품 업체 지원

- 부품 시장은 체계 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시장으로서, 필리핀의 획득 계획 및 현지 동향으로부터 체계 단위의 정보를 파악한 후 2차적으로 부품 시장 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의 수요가 많은 함정과 항공기의 통제 및 통신 체계를 비롯하여, 기타 소나·무인기·시뮬레이션 등의 하위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현지 공급망을 파악한 후, 공급망이 없는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 향후 필리핀 방산시장에 대한 접근은 우리 방위산업의 구조상 대기업 위주의 완성 장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방산중소벤처기업 진출에 중점 지원, 현지 조립·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체계 중심의 대(對)필리핀 수출은 지속되는 반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필리핀 양국협력 발전을 위해서도 체계 수출과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조립·정비사업으로 대(對)한국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다. 방산중소기업 수출조합 설립

- GtoG 차원의 협력은 물론, BtoB 협력 채널도 다원화함으로써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의 무기체계 소요와 산업협력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공중체계에 비해 미·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이 비교적 덜한 지상·해상부문의 마케팅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시점이다.
- 필리핀 국방조달 체계의 경우 영어로의 소통이 원만하고 영문으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현지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자체 판로를 개척하려면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마케팅 및 로비 비용을 투자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지 비용을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방산중소기업수출조합(가칭)의 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각 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및 POC와의 관계를 유지 유지하되 회원사가 요청할 경우 일정량의 정보 제공하여 국가별, 에이전트별, 품목별 사업별로 업무 교류, 거래 진행 내용 및 결과 등 전 과정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축적하고 이를 향후 활용한다면 정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ASEAN의 중주국으로서, 2012년 이후 평균적으로 연간 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2016년 두테르테 정권이 출범한 이래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 안보에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ASEAN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부터 5년 단위 3단계 군 현대화사업(2013~2027)을 진행 중으로, 2020년 현재 제 2단계(2018~2022)의 목표인 “최소한의 신뢰방어 기반 구축 및 내부 치안 작전 충족 달성”을 위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최종 단계인 제 3단계(2023~2027)의 목표는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 전력 확보”이다.
- ❖ 필리핀은 내부적으로는 반란군 및 이슬람세력의 테러, 외부적으로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 및 장기간의 무기체계 수요가 예상된다.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2021년과 그 이후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향후 10년 간의 확정 및 예상 획득소요를 분석한 결과, 무기체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지휘통제체계, EO/IR, 통신체계, 시뮬레이션, 무인체계(UAV, UGV 포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 필리핀 방산시장에 대한 SWOT 분석으로 도출한 전략은 4가지로, 우방관계를 활용한 지속적 마케팅 노력, 산업전반에 걸친 절충교역 지원, 잉여 군수물자를 활용한 포괄적 패키징 제공, 획득 핵심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외에 필리핀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2가지는 군사 원조 및 에이전트 활용이다.
- ❖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5가지로, 정부 협력 차원의 2가지 정책은 ASEAN 국방협의체 활용과 GtoG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차원의 3가지 정책은 MRO 사업 활성화 지원, 체계기업 및 부품기업 대상 2-TRACK 지원, 중소기업 수출조합의 설립이다.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진출전략 제안

- ① 완성 체계를 공급하는 방산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글로벌가치사슬(GVC) 편입
- ② 현지 조달정보 파악을 위한 획득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③ 검증된 현지 에이전트 활용(기품원의 “해외 방산에이전트사 신용정보 서비스” 활용)

이 면은 공백임

부 록

1. 군종별 노후화 장비

2. 향후 획득 계획

3. 제2차 군 현대화 계획(Horizon Phase II) 조달목록

4. 현지 주요 방산기업

부록 1. 군종별 노후화 장비

체계구분	체계명	역할	최초 납품년도	운영 수량
공군				
항공기	OV-10A	Combat	1991	1
	OV-10C	Combat	2003	4
	SF-260TP	Combat	1993	5
	F27 Series 100	Logistics	1959	1
	F27 Series 200	Logistics	1959	1
	C-130B	Logistics	1991	1
	C-130H	Logistics	1976	2
	F28 Mk 3000	General aviation	N/A	1
	S.211	Trainer	1989	3
	T-41D	Trainer	1968	1
	500M	Light attack	1990	12
	AUH-76	Light attack	1984	2
	UH-1H	Utility	1969	42
	AB205A	Utility	1984	5
	Bell412SP	Utility	1994	2
	S-76A	Executive	1984	2
S-70A-5	Executive	1984	1	
육군				
기갑차량	YPR 765 (PIFV)	Armou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1979	45
	M113A1	Infantry fighting vehicle	1967	100
	Simba	Armoured personnel carrier	1993	130
항공기	Queen Air 80	Executive	1998	1
해군				
함정	Cannon	Frigate	1943	1
	Cyclone	Corvette	1993	1
	PCE 827	Corvette	1943	3
	Auk	Corvette	1944	2
	Jacinto (Peacock)	Corvette	1984	3
	Tomas Batilo (Sea Dolphin)	Fast attack craft	1995	8
	Point	Patrol craft	1967	2
	Aguinaldo	Patrol craft - large	1990	2
	Kagitingan	Patrol craft - large	1979	2
	PCF 65 (Swift Mk 3)	Patrol craft - coastal	1975	4
항공기	BN2	Utility	1975	6
	BO 105C	Utility	1977	4

부록 2. 향후 획득 계획

통신체계 분야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AEW Aircraft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20
AEW Aircraft HF Radio	Fixed-Wing	SpecMission Acft	0.07
AEW Aircraft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7
AEW Aircraft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04
AEW Aircraft V/UHF Transceivers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2
Attack Helicopter Data Link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28
Attack Helicopter HF Radio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75
Attack Helicopter IFF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00
Attack Helicopter Interco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47
Attack Helicopter V/UHF Transceivers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33
Basic Trainer ICS	Fixed-Wing	Other Aircraft	0.63
Basic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1.35
Basic Trainer Radios	Fixed-Wing	Other Aircraft	2.02
CNR	Manportable	Manportable	38.92
Coast Watch VSAT terminals	Grd/Transportable	Ground	11.89
Data Communications Equipment	Ground/Fixed	Ground	6.95
Datalink	Multiple	MissionElec Oth.	12.37
ELINT Aircraft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5
ELINT Aircraft HF Radio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0
ELINT Aircraft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76
ELINT Aircraft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8
ELINT Aircraft V/UHF Transceivers	Fixed-Wing	SpecMission Acft	0.54
FFGHM Future Datalink	Ship	Frigate	1.53
FFGHM Future Ex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Frigate	2.99
FFGHM Future IFF	Ship	Frigate	1.62
FFGHM Future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Frigate	4.98
FFGHM Future SATCOM	Ship	Frigate	3.15
Fighter Data Link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93
Fighter HF	Fixed-Wing	Strike/Attack Acft	0.97
Fighter IFF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25
Fighter Intercom	Fixed-Wing	Strike/Attack Acft	0.59
Fighter V/UHF Transceivers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67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Fixed HF Radio	Ground/Fixed	Ground	1.64
HF Fixed	Ground/Fixed	Ground	2.32
Information Systems Upgrades	Ground/Fixed	Ground	181.89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HF Radio	Fixed-Wing	Transport Acft	0.67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81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Inter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38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V/UHF Transceivers	Fixed-Wing	Transport Acft	1.19
M/HTR Data Link	Helicopter	Transport Acft	0.08
M/HTR ICS	Helicopter	Transport Acft	0.13
M/HTR IFF	Helicopter	Transport Acft	0.53
M/HTR Radios	Helicopter	Transport Acft	0.62
M/HTR SATCOM	Helicopter	Transport Acft	0.60
Manportable HF Radios	Manportable	Manportable	20.34
Marines GCS LOS Data Link	Manportable	Manportable	1.18
Marines LOS Data 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2.36
MBT VHF/U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12
MPA Data 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6
MPA HF Radio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1
MPA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41
MPA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9
MPA SAT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80
MPA V/UHF Transceivers	Fixed-Wing	SpecMission Acft	0.82
OPV Coast Guard data links	Ship	Patrol Craft	1.48
OPV Coast Guard ESM/ECM System	Ship	Patrol Craft	4.43
OPV Coast Guard Ext Coms	Ship	Patrol Craft	2.93
OPV Coast Guard IFF	Ship	Patrol Craft	0.31
OPV Coast Guard Internal Communications	Ship	Patrol Craft	6.15
OPV Coast Guard SATCOM	Ship	Patrol Craft	1.97
OPV Data Links	Ship	Patrol Craft	3.22
OPV ESM/ECM System	Ship	Patrol Craft	9.66
OPV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hip	Patrol Craft	6.82
OPV IFF	Ship	Patrol Craft	0.67
OPV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hip	Patrol Craft	13.41
OPV SATCOM	Ship	Patrol Craft	4.29
PC #21-30 Data link	Ship	Patrol Craft	3.20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PC #21-30 External Communications	Ship	Patrol Craft	1.21
PC #21-30 IFF	Ship	Patrol Craft	0.80
PC #21-30 Internal Communications	Ship	Patrol Craft	1.92
PC #21-30 SATCOM	Ship	Patrol Craft	5.12
SAM vehicles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57
SATCOM Terminals	Grd/Transportable	Ground	5.53
Ship Data Communications Equipment	Ship	Multiple	13.77
Submarine Datalinks	Submarine	Attack Sub	1.25
Submarine ESM/ECM System	Submarine	Attack Sub	3.41
Submarine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ubmarine	Attack Sub	3.41
Submarine IFF	Submarine	Attack Sub	1.02
Submarine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ubmarine	Attack Sub	1.70
Submarine SATCOM	Submarine	Attack Sub	1.93
Tactical Transport ICS	Fixed-Wing	Transport Acft	0.09
Tactical Transpor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40
Tactical Transport SAT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75
Tactical Transport V/UHF/HF	Fixed-Wing	Transport Acft	0.56
Tanker Aircraft Datalink	Fixed-Wing	Transport Acft	0.72
Tanker Aircraft HF Radio	Fixed-Wing	Transport Acft	0.23
Tanker Aircraf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1.15
Tanker Aircraft Inter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14
Tanker Aircraft V/UHF Transceivers	Fixed-Wing	Transport Acft	0.21
Tarlac Class LPD Data Links	Ship	Other Ship	1.54
Tarlac Class LPD Ex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Other Ship	2.89
Tarlac Class LPD IFF	Ship	Other Ship	1.54
Tarlac Class LPD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Other Ship	5.12
Tarlac Class LPD SATCOM	Ship	Other Ship	3.25
UHF Network	Ground/Fixed	Ground	0.54
VHF Radio	Ground/Fixed	Ground	0.36
예상획득계획			
Basic Trainer ICS	Fixed-Wing	Other Aircraft	0.71
Basic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1.52
Basic Trainer V/UHF/HF	Fixed-Wing	Other Aircraft	3.03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Radios			
LAMV ICS	Ground Vehicle	NonCombat Gnd Veh	6.64
LAMV VHF Radio	Ground Vehicle	NonCombat Gnd Veh	26.55
M113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6.55
Medium UGV GCS Data Link	Manportable	Manportable	0.00
MRAP-IS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4.72
Multi vehicle IC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5.71
Multi vehicle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4.28
SATCOM Terminals	Grd/Transportable	Ground	2.85
Soldier Modernization PRR	Manportable	Manportable	5.54
SOTM Terminals	Grd/Transportable	Ground	4.49
TUAS GCS Data Link	Grd/Transportable	Ground	2.36
TUAV Data 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5

지휘통제체계 분야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AEW&C C2	Fixed-Wing	SpecMission Acft	10.40
AKR Mod Makassar (Tarlac) CMS	Ship	Other Ship	8.42
Command Post C2 Elements	Grd/Transportable	Ground	27.01
ELINT TDMS	Fixed-Wing	SpecMission Acft	25.44
FFGHM Future CMS	Ship	Frigate	28.14
FS CMS	Ship	Corvette	18.40
MBT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23
MPA C2	Fixed-Wing	SpecMission Acft	26.64
MPS	Grd/Transportable	Ground	0.76
NG Strategic C2	Ground/Fixed	Ground	58.97
PSOH OPV Future CMS	Ship	Patrol Craft	34.76
SAM C2	Grd/Transportable	Ground	14.87
Small TUA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41
SSK Submarine CMS	Submarine	Attack Sub	21.40
WPSOH MRRV CMS	Ship	Patrol Craft	8.42
예상획득계획			
AIFV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65
APC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43
Ground based anti-aircraft (SAM) CP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3.97
HLS C2	Ground/Fixed	Ground	25.54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HLS CBRN C2	Grd/Transportable	Ground	1.23
JF Logistics C2	Ground/Fixed	MissionElec Oth.	6.41
Joint C2 System	Multiple	Multiple	16.50
M113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6.86
Medium UG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12
Military ATC C2	Ground/Fixed	Ground	4.72
Soldier C2	Manportable	Manportable	8.48
Tactical BMS	Ground Vehicle	Multiple	6.60
TUAS GCS	Grd/Transportable	Ground	8.15
VTMS C2	Ground/Fixed	Ground	7.12
VTMS C2 Upgrades	Ground/Fixed	Ground	8.31

EO/IR(전자광학/적외선) 시스템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Air Observation Turret (light)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00
Commander'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1.72
Driver's Night Vision System (DNV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4.21
EO/IR Fire Control System	Ship	Corvette	1.04
		Frigate	1.60
		Other Ship	1.79
Gunner'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3.32
Gunner's Sight (L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0.98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3.52
Laser Warning System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1.68
MWS-LWS combined sensor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94
Naval ROWS Sight (Heavy)	Ship	Other Ship	3.27
		Patrol Craft	10.58
Naval ROWS Sight (Light)	Ship	Patrol Craft	1.76
Naval Targeting System (heavy)	Ship	Frigate	0.60
Naval Targeting System (light)	Ship	Patrol Craft	4.36
Observation Turret	Fixed-Wing	SpecMission Acft	2.18
	Helicopter	Utility Aircraft	0.61
Pilot's Night Vision Syste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3.75
ROWS Sight (L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0.74
Search Optronic Mast (SOM)	Submarine	Attack Sub	3.38
Situational Awarenes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0.61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System (SAS)			
Target Locator (long-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0.91
Target Locator (medium-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2.68
Targeting Pod	Fixed-Wing	Strike/Attack Acft	5.72
Targeting Turret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7.50
Terrestrial LR Surveillance System	Ground/Fixed	Ground	5.78
Thermal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5.62
Thermal Weapon Sight (long 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5.59
예상획득계획			
Attack Optronic Mast (AOM)	Submarine	Attack Sub	3.06
Aviator's Night Vision Goggles	Manportable	Manportable	2.76
Directed Infrared Countermeasures System	Fixed-Wing	SpecMission Acft	6.70
		Transport Acft	7.97
Driver's Night Vision System (DNV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9.96
EO/IR Sensor Set Medium UGV	Ground Vehicle	NonCombat Gnd Veh	0.24
Future Surveillance Satellite Payload	SpaceSystems	Satellite	3.31
Gunner'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4.41
Gunner's Sight (L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2.17
Heavy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4.73
HMDS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46
I2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12.37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Fixed-Wing	Strike/Attack Acft	9.54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IRST)	Ship	Corvette	1.94
Laser Rangefinder Module	Manportable	Manportable	0.85
Laser Warning System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3.29
MANPADS Night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8.98
Missile Warning Syste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8
		Strike/Attack Acft	0.70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29
		Transport Acft	0.84
MWS-LWS combined sensor	Fixed-Wing	Strike/Attack Acft	5.79
		Transport Acft	0.90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68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Naval Observation Turret (light)	Ship	Patrol Craft	1.38
Observation Turret	Fixed-Wing	SpecMission Acft	1.45
		Strike/Attack Acft	1.04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59
		Strike/Attack Acft	0.68
		Transport Acft	1.65
Utility Aircraft	1.14		
Observation Turret (light)	Fixed-Wing	SpecMission Acft	6.78
Portable Designator/Rangefinder	Manportable	Manportable	12.77
ROWS Sight (Heavy)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8.11
Situational Awareness System (SA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7.93
Target Locator (medium-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1.50
Target Pointer/Illuminator	Manportable	Manportable	1.04
Targeting Pod	Fixed-Wing	Strike/Attack Acft	6.11
Targeting Turre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4.60
Thermal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2.20

시뮬레이션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예상획득계획			
Philippines 208B Grand Caravan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Fixed-Wing	SpecMission Acft	2.35
Philippines 208B Grand Caravan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Suppor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8
Philippines AEW Aircraft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Fixed-Wing	SpecMission Acft	2.21
Philippines AEW Aircraft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Suppor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03

📦 무인체계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Philippines Marines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14.47
예상획득계획			
Philippines Air Force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15.38
Medium UGV	Ground Vehicle	NonCombat Gnd Veh	2.28

부록 3. 제2차 군 현대화 계획(Horizon Phase II) 조달목록

Horizon Phase II Procurements - Army	
Type	Stage
Light Tanks	Pre-procurement phase
M113 Armoured Mortar Carrier Upgrade	Expected to be delivered in 2020
M113 APC Firepower Upgrade	Pre-procurement phase
Wheeled Armoured Personnel Carrier	Pre-procurement phase
155mm Howitzer, Self-Propelled	Pre-procurement phase
Medium Multi-Purpose Assault Weapon:	Pre-procurement phase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	Pre-procurement phase
Riverine Operations Equipment	Pre-procurement phase
7.62mm Sniper Weapon System	Pre-procurement phase
40mm Revolver Grenade Launcher	Second attempt of bidding done
Mortars (60mm and 81mm infantry)	Pre-procurement phase
Armoured Vehicle Launch Bridge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Armored Vehicle Launch Bridge: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Armored Combat Engineering Earthmover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Combat Engineering Vehicle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Floating Support Bridge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High Mobility Emplacement Excavator	Procurement phase through public bidding
Light Tactical Vehicle	Pre-procurement phase
All-Terrain Vehicle	Contract awarded to Scan Marine Inc.
Tank Gunnery Simulator	Second bid attempt ongoing
Philippine Army C4ISTAR	Contract awarded to Elbit systems
Land Based Missile System	Pre-procurement phase
Training Helicopter	Planning
Medical Evacuation (MEDEVAC) Helicopter	Planning
Light Attack Helicopter	Planning
Multirole Fixed-Wing Aircraft	Planning
Submarines	Planning
Combat Aircraft	Planning

Horizon Phase II planned Procurements - Navy	
Type	Stage
Corvette	Pre-procurement phase expected to awarded to Hyundai Heavy Industries
Offshore Patrol Vessel	Pre-procurement phase expected to awarded to Austal Corp
Landing Platform Dock: Del Pilar-class Upgrade	Undergoing revaluation Awarded to Hanwha systems
Pohang-class Corvette Transfer	Completed; Now ship is known as BRP Conrado Yap (PS-39)
Jacinto-class Patrol Vessel Phase 2 MPAC Combat System and Capability	Tender process ongoing Delivery phase

Upgrade:	
Tactical Combat Vehicle	Pre procurement phase
Light Armor System Upgrade	Awarded to L&T
AW109 Naval Helicopter Weapons Upgrade	G2G procurement through US
Multi-Purpose Amphibian Aircraft:	On hold
Squad Rocket Launcher Light	Bidding process ongoing
Multi-Purpose Bunker Defeat Weapon	Approved for implementation
Force Protection Equipment (Body Armor & Helmet)	Bidding process ongoing
Naval 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Equipment:	Pre procurement phase
Maritime ISR	Awaiting for approval
Cyber Laboratory & Operations Centre	Pre procurement phase
Fast Attack Interdiction Craft - Missile Capable (FAIC-M)	Pre procurement phase
Submarine	Pre procurement phase
Shore-Based Anti-Ship Missile System:	Awaiting for approval
Shore-Based Air Defense Missile System:	Awaiting for approval
Fast attack interdiction boats	Pre procurement phase

Horizon Phase II planned Procurements - Airforce	
Type	Stage
Multi-Role Fighter Aircraft	Pre procurement phase
Multi-Role Fighter Munitions System	Pre procurement phase
Air Surveillance Radar System	Selection phase
Ground Based Air Defense System (GBADS)	Awarded to Rafael
Attack Helicopter	Pre procurement phase
Gulfstream G280 Command and Control Aircraft	Awarded to Gulfstream Aerospace
EADS-CASA C-295 Command and Control Aircraft	Commissioned on 12 November 2019
Medium Lift Aircraft	Pre procurement phase

부록 4. 현지 주요 방산기업

1. 항공 부문

Philippine Aerospace Development Corporation	
Summary	Provides MRO services on a range of aerospace systems including engines and landing gears. Also undertakes assembly and machining of aerospace components. Assembled Aermacchi S-211 in service with AFP.
Ownership	State owned
Web	www.padc.com.ph

Asian Aerospace Corporation	
Summary	MRO services on C-130 and distributor for a range of military aerospace systems. An authorised US DoD contractor for C-130 repair service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asianaerospace.com.ph

Aerotech Industries Philippines	
Summary	Provides assembly services and production of a range of aerospace parts. Assembled Alenia Aermacchi SF-260F/PAF primary trainer aircraft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aerodef.net

Aerotechnik Services	
Summary	Specialises in aircraft structure and composite repair in civil/military sector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aerotechnikservices.multiply.com

Manila Aerospace	
Summary	Provides repair and support service for a range of military aerospace system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manilaaerospace.com

2. 지휘정찰 부문

Integrated Micro-Electronics	
Summary	Provides a rang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for government services including defence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global-imi.com

AC Corporation	
Summary	Develops and produces communications and IT solutions for military and homeland security application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ac-corporation.com.ph

Trends and Technologies	
Summary	Provides cyber-security and IT management service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trends.com.ph

Mabuhay	
Summary	Provides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ground-bas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government, military and commercial sector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mabuhaysat.com

Marjeds Systems Inc (MSI)	
Summary	Develops and manufacture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devices
Ownership	State owned
Web	www.marjeds.com

Skyeye	
Summary	Provides a range of service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skyeyeproject.com

3. 화기 부문

Government Arsenal	
Summary	Produces firearms, propellants, explosives, ammunition for Philippines Armed Forces
Ownership	State owned
Web	www.arsenal.mil.ph

Shooters Arms Manufacturing	
Summary	Manufactures small arms and ammunition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shootersarms.com.ph

Arms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	
Summary	Manufactures small arms and ammunition. Supplies a wide range of firearms and ammunition to the AFP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armscor.com.ph

Twin Pines	
Summary	Manufactures small arms and ammunition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twinpines.com.ph

Ferfrans	
Summary	Develops and produces firearms and specialised add-ons for firearms such as the M4 in use with the AFP. The company's Special Operations Assault Rifle (and associated versions)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AFP.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ferfrans.net

Aquila	
Summary	Manufactures small arms and ammunition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aquilafaa.com

United Defense Manufacturing Corporation	
Summary	Develops and manufactures handguns and assault rifles. Developed a pneumatic assault rifle in collaboration with the Philippine Navy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udmc-weapons.com

4. 지상 부문

MD Juan Enterprises	
Summary	Manufactures light military vehicle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mdjuan.com

Steelcraft Industrial and Development Corporation	
Summary	Manufactures light military vehicles. Company has developed armoured personnel carriers named Hari-Digma and MX-1 Kalakian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steelmachinery.com

Floro International	
Summary	Produces small arms, firearm components, submachine guns and grenade launchers. Also provides the AFP with upgrade kits for 105 mm howitzer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floro-intl.com

5. 해상 부문

Keppel Philippines Marine	
Summary	Naval shipbuilding, ship repairs. Building Jacinto-class patrol vessels for Philippine Navy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keppelom.com

Colorado Shipyard Corporation	
Summary	Carries out ship repairs and associated electrical work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coloradoshipyard.co

Philippine Iron Construction & Marine Works	
Summary	Naval and commercial shipbuilding, ship repair and shipping operations. Also produces a range of naval systems. Company built a 579-ton landing craft utility for the Philippine Navy that was commissioned in December 2011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picmw.com

Subic Drydock Corporation	
Summary	Undertakes ship repair, overhauling, installation, fabrication services. Has been providing services to locally based US Navy ships for more than 30 year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subicdock.com

Santiago Shipyard and Shipbuilding Corporation (SSSC)	
Summary	Naval ship repair, dry-docking services, work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santiagoship.com/sssc/home.html

Propmech	
Summary	Shipbuilding, conversion and repair services. Also undertakes services of marine engines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propmech.com

StoneWorks	
Summary	Develops and constructs small naval vessels as well as commercial boats. Has delivered 7 m and 9 m assault boats to the AFP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stoneworkscorp.com

Herma Shipyard	
Summary	Shipbuilding, conversion and repair services. Works on naval vessels of up to 10,000 deadweight tonnage
Ownership	Privately owned
Web	www.hermashipyard.com

이 면은 공백임

참고문헌(국외)

- (1) Jane's Market Report 2020 – Philippines
- (2) Philippines Inventories Data, Jane's
- (3) Defence Budget Overview – Philippines, Jane's
- (4) Global Data, The Philippine Defense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5
- (5)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www.sipri.org)
- (6)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Trade registers (www.sipri.org)
- (7) OECD Journal on Budgeting, "Budgeting in Philippines by Jon R Bloendal"(2010)
- (8) Philippine Republic Act No. 9184, 제3장
- (9) Mike Yeo, "Here's the Philippine military's wish list for its newly approved modernization phase," Defense News, June 21, 2018.
- (10) "2017년 동아시아 전략개관", 일본 방위연구소, 2017.
- (11) Mike Yeo, "Here's the Philippine military's wish list for its newly approved modernization phase," Defense News, June 21, 2018,

참고문헌(국내)

- (1) 필리핀 개황 (외교부, 2019.11)
- (2) KOTRA 해외시장 뉴스 국가.지역정보-필리핀
- (3) 2020 국별 진출전략-필리핀, KOTRA, 2020
- (4) 필리핀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안영수 · 윤자영 · 김이곤, 2014.6.
- (5) 국방기술품질원, “2019 세계방산시장연감 - 필리핀”
- (6) 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연구용역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 (7) 해외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방위사업청, 2015. 2.
- (8) 과학기술정책 통권 207호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ology’, 국방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박삼준, 2015.

이 면은 공백임

필리핀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Philippines Defense Industry Market

작성			
성명	분야	전화번호	E-mail
권연경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94	ykkwon@dtaq.re.kr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수출지원1팀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선임연구원 원준호	

이 면은 공백임



**필리핀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